

신임 진천 선수촌장에 유인탁 전북체육회 사무처장 “체육 위상 드높이도록 최선”

1984년 LA올림픽 레슬링 금메달리스트로 한국 레슬링 ‘간판’
1997년부터 국내 감독 맡는 등 선수 양성·관리에 역량 갖춰
내년 개최 베이징 동계올림픽·향저우 아시안게임 등 준비
“전북 체육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앙과 가교 역할 할 것” 포부

전북체육회 유인탁 사무처장(사진)이 국가대표 선수촌장으로 임명됐다고 전했다. 유인탁 선수촌장은 선수와 지도자 국가대표 감독 등 엘리트 체육 정통 코스를 거쳤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체육 행정(시도체육회 사무처장)을 두루 거쳤다. 국가대표 엘리트 선수들의 요람인 선수촌장은 차관급이며, 전북 출신으로는 박종길 전 태릉선수촌장에 이어 두 번째다. 1984년 미국 LA올림픽 레슬링 자유형(68KG급) 금메달리스트인 그는 한국 레슬링의 대표적 인물이자 정통 체육인 출신으로 선수촌과도 각별한 인연이 있다. 국가대표 선수 시절을 비롯해 지난 1997년부터 3년간은 국가대표 레슬링 감독을 맡아 선수들을 지도하는 등 선수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선수 양성 및 관리에 탁월한 역량과 리더십을 발휘했다. 또한 전북체육회 사무처장, 익산시체육회 사무국장 등을 역임하는 등 체육 행정 경험도 풍부하다.

이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고심 끝에 역대 선수촌장 중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없었던 점과, 향후 열리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규모가 큰 대회에 한국 선수단을 이끌어 갈 ‘장수’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물색해 왔다. 이에 한국 레슬링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유인탁 전북체육회 사무처장을 최종 낙점했다. 이로써 전북체육회와 도내 체육인들은 대한체육회를 비롯해 중앙 체육과 더욱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한편 유 선수촌장의 임기는 9월1일부터 2년간이며, 한국 선수단의 기량을 향상시켜 내년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2022 동계올림픽을 비롯해 2022 향저우 아시안게임, 코로나19로 1년 연기 돼 내년에 열리는 청두 2021 하계 유니버시아드 등을 준비하게 된다. 그는 “한국 체육을 이끄는 선수촌장으로 선



임 때 어깨가 무겁다”며 “한국 체육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선수들이 오롯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상의 체육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 체육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앙과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며 “한국 체육이 전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장은성기자

소상공·체육학술단체 위해 임대료 감면

국민체육진흥공단, 코로나19 지속될 경우 내년까지 연장키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체육단체들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올해 하반기 올림픽공원과 분당·일산 스포츠센터에 입주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58개 업체와 체육학술단체 13곳의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대응행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될 경우 감면정책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코로나 전후 6개월간 매출감소 비율에 따라 10~80%의 감면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체육학술단체는 50% 일괄 감면 혜택을

제공받아 총 5억 8000만원 상당의 임대료가 감면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 결정이 소상공인분들과 체육단체들의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공단은 체육계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상생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체육계를 위해 스포츠기업 대상 융자(1361억원),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1139억원), 스포츠기업 재창업 지원(51억원),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감면(13억원)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뉴시스

프로축구선수협-여자축구연맹, 여자축구 발전 방향 논의

선수들에 구단·연맹 지속 교육키로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선수협)는 여자축구연맹과 함께 한국 여자축구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선수협은 선수·구단·연맹 간의 소통을 강조하며 선수들에게도 구단과 연맹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수로서의 책임감과 사회공헌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여자축구연맹 또한 선수협의 이런 뜻을 환영하며 선수협이 구단 방문 교육을 통해 선수들에게 올바른 이해와 프로의 책임감을 전달해

주길 기대했다. 여자축구연맹 김정선 사무국장은 “연맹은 여자축구의 발전 및 선수들을 위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함께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선수협 김훈기 사무총장과 지소연 회장은 여자축구연맹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여자축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해주세요

아·태 마스터스 성공 ‘한마음’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서 성공 개최 지원 협약 체결
조직위, 지방 4대 협의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송하진)에 따르면 지난 26일 세종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제48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2023 아태 마스터스대회의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아태마스터스대회에 대한 관심과 협업을 위한 범국민 참여, 대회 홍보, 아태 마스터스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참여 및 대회 참가자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17개 시도가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에 1년 9개월여 남은 아태 마스터스대회의 실질적인 전국 범입과 국민 참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은성기자

송하진 위원장은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대한민국 모든 시·도지사가 함께 뜻을 모아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2018 전국체전 개최를 통해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직위원회는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지방 4대 협의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2023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는 2023년 5월 전북 일원에서 펼쳐지는 생활체육 국제스포츠 이벤트로서, 전 세계 70개 국가에서 1만3,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장은성기자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이 지난 26일 세종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제48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2023 아태 마스터스대회의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총회에 참석한 시도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 /장은성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